

中山 孫文의 民族主義 思想의 人間觀에 관한 研究

琴 土 樹

目 次	次
I. 序 論	1. 民族主義와 國族主義
II. 生涯와 《三民主義》	2. 民族興亡盛衰의 原因과 中國民族主義衰亡의 原因
1. 生 涯	3. 中國民族主義의 妥當性의 根據
2. 《三民主義》의 構成	IV. 結 論
III. 民族主義와 人間觀	

I. 序 論

中山 孫文은 大凡四十年 國民革命에 힘 써 中國의 自由와 平等 곧 民族의 自主獨立을 求하였다.¹⁾

1839년부터의 阿片戰爭과 그 結果의 屈辱的인 南京條約과 賠償의 履行, 開港 등은 清朝의 無力함이 天下에 드러났거니와 1895년의 淸日戰爭의 敗北는 中國人을 크게 혼들어 놓았으며 清朝를 뒤흔들어 놓은 것이었다.

太平天國의 亂으로 말미암은 中國은 混亂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고 中國民을 自覺하고 富國強兵을 위한 洋務運動・變法運動을 추진하였으나 如意치 못하자 救國의 길은 近三百年 以來 異民族의 王朝인 清朝를 打倒하고 그 專制主義를 終息시키고 民主的 共和制를 樹立해야 한다는 革命運動이 孫文을 中核으로 하는 革命勢力에 의하여 일어나게 된 것이었다.

無能한 異民族의 王朝인 清朝를 打倒코저 하는 民族主義와 專制君主政을 打倒하고 世界의 時運에 順應하여 共和政을 樹立하려는 民權主義를 주축으로 하는 孫文의 革命思想은 辛亥革命의 成功으로 民生主義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러나 辛亥革命으로 解決된 것으로 確信하였던 民族主義의 發展도 軍閥의 말호로 말미암아 또 다른 試鍊에 부딪혔다. 이러한 그의 國民革命의 挫折, 帝國主義列強의 利權保全을 위한 北京軍閥과의 內通 및 第一次 世界大戰을 前後한 帝國主義列強에 대한 환멸은 그의 革命運動이 反軍閥・反帝運動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다.

여기서 研究코저 하는 現存하는 《三民主義》는 陳炯明의 叛亂으로 因하여 原稿가 完成

1) 그의 「遺囑」에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余致力國民革命凡四十年其目的在求中國之自由平等……」(中國國民黨中央委員會, 《三民主義》中央文物供應社 中華民國七十一年).

되어 出版 段階에 있던것이 燒失됨으로써 그가 1924年 1월부터 8월까지 革命的 基地 廣州에서 講演한 것을 整理한 것이다.

그는 「三民主義는 救國主義」라고 하고 中華民族과 國土에 대하여 「中華民族世界之至大者也亦世界之至優者也」라 하고 「中華土地世界之至廣者也亦世界之至富者也(社會建設自序)」라 하였다.

「人傑은 地靈」이라 하거니와 그 땅에 聖賢英傑이 代를 잇고 繼往聖開來學이 있다. 孫文의 人物과 思想에 接하면 警異의 世界에 빠져들어가지 않을 수 없다.

「救國主義」思想이 담긴 「三民主義」 특히 民族主義思想의 窮極에 있는 그의 人間理解를 追求해 보고자 한다.

II. 生涯와 《三民主義》

1. 生涯

孫文의 字는 逸仙이고 號는 中山이다. 그는 1866年 11月 12日(陰曆으로는 10月 6日) 廣東省 香山縣(現廣東中山縣) 翠亨村에서 탄생하였다. 中農 집안에 태어난 그는 兄이 두 사람 여동생이 한사람 있었는데 丹형은 일찌기 「하와이」로 떠나 그 곳에 자리잡고 있었다. 孫文은 7세에 書堂에서 《三字經》, 《千字文》을 배웠다고 한다. 그 사장은 太平天國의 生存兵士로 孫文은 滅滿興漢의 思想의 感化를 받았다고 한다. 12세때 書堂공부를 그만두고 「하와이」에 건너가서 眞珠灣 地區의 兄 집에서 學校에 다녔다. 17세때 學校를 마치고 歸國하여 盧氏夫人과 結婚하여 二男一女를 두었다고 한다.²⁾

1885年 19세때 廣州의 博濟醫學校에 入學하였고 1887年 香港 英文醫學校에 入學하여 卒業 後에는 「마카오」(澳門)에서 開業하였다.

그는 淸佛戰爭 後에 滿淸政府의 부패를 목격하고 滿淸政府를 打倒해야 겠다는 뜻을 갖이게 되었다³⁾고 한다. 光緒 20年(1894)에 淸日戰爭이 勅發하자 그는 天津으로 가서 李鴻章에게 글을 올려 救國大計를 條陳하였으나 李鴻章은 거절하여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마침내 「하와이」로 가서 同志와 興中會를 조직하였다. 다음 해에는 香港에 興中會 總機關을 두었는데 「韃虜의 驅逐, 中華의 恢復, 共和政府(合衆政府)創立」을 宗旨로 삼았다. 아울러 廣州에서 舉事키로 하였으나 비밀이 누설되어 同志들은 체포되고 殺害된 者가 數十명 이었다. 그 뒤 孫文은 日本을 周遊하면서 「하와이」와 「美國」에 있는 華僑들에게 연락하여 革命을 倡導하였다. 光緒 22年(1896) 8월에 美國에서 英國으로 건너간 후에 淸의 官吏에게 유인되어 淸使館에 强禁당하였으나 英國政府의 强硬한 交涉으로 석방되었다. 다음 해에 유럽에서 캐나다를 거쳐 日本으로 와서 革命을 획책하고 日本在

2) 李明九譯, 《三民主義》(三星文庫, 1981), p. 298.

3) 傅樂成, 《中國通史》下冊(大中國圖書公司, 民國七十一年), p. 699.

野政黨의 重要人物과도 접촉하였다. 光緒 25年(1899)에 陳少白에게 命하여 香港에서 「中國日報」를 創刊하여 革命을 고취하게 하고 史堅如・畢永年등은 長江과 兩湖 各지의 會黨과 연락하고 또 鄭士良에게 命하여 香港에 連絡機關을 설치하였다. 이에 哥老會・三合會 등 反清會黨은 大部分 興中會에 흡수되어 革命勢力이 더욱 확장되었다.

光緒 26年(1900)에 孫文은 鄭士良에게 命하여 惠州(現 廣東惠陽縣)에서 舉事하도록 하여 連戰獲勝하였으나 끝내는 원조가 없어 失敗하였다. 이 해에 史堅如是 廣州에서 兩廣總督을 죽이려 하였으나 이루지 못하였다. 이밖에 唐才常의 舉事 試圖나 光緒 29年(1903)의 黃興・宋教仁 등이 長沙에서 華興會를 조직한 舉事는 失敗하였으나 中國人의 反清風潮는 높아지고 革命團體에 참가하는 사람이 더욱 늘어났다.

光緒 29年(1903)에 孫文은 日本에서 美國으로 건너갔다. 다음 해에 유럽으로 다시 가서 革命을 선전하여 留學生 가운데 참가자가 더욱 늘어나게 되었다. 光緒 31年(1905)에 日本으로 돌아와 黃興과 같이 東京에서 中國同盟會를 조직하고 「中華民國」이라는 名稱을 定立하였다. 이 해에 「民報」를 創刊하고 同志들을 歸國시켜 活動케 하였다. 革命勢力은 점차 全國에 퍼져 各地에 義舉者가 續出하였다. 光緒 33年(1907)에 孫文은 越南에 가서 黃興등을 歸國케 하여 革命을 策動하였다. 黨人들과 黃興과 그 同志들의 舉事는 失敗하고 革命黨人의 被害가 莫甚하였다. 그러나 이때 淸나라 朝廷의 大勢는 이미 기울어 마침내 1911年 가을에 革命勢力에 의하여 打倒되고 말았다.⁴⁾

1911年 11월에 孫文은 유럽에서 歸國하여 中華民國 臨時 大總統에 추대 되었다. 11月 13日 孫文은 南京에서 취임하고 陽曆으로 고치니 이날이 民國元年(1912) 1月 1日의 일이었다. 淸朝王室은 臨時政府와 優待條約 19條를 체결하여 그해 2月 12일에 退位하여 淸朝는 268年만에 滅亡하였다. 그러나 臨時政府는 內戰을 피하고 統一을 촉진시킨다는 견지에서 孫文은 辭職하고 袁世凱를 천거하여 1912年 2月 14일에 參議院에서는 袁世凱를 第二代 臨時大總統으로 선거하고 3일에 北京에서 취임토록 하여 南北이 正式으로 統一되었다.

다음 해 4월에 國會가 成立하고 10월에는 袁世凱를 正式 總統으로 선출하여 各國의 承認을 받았다. 國會는 參議院 衆議院의 兩院制였다.⁵⁾

이와같이 袁世凱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同盟會의 後身인 國民黨은 袁世凱로 부터 彈壓을 받아 革命後 一年도 못되어 孫文은 日本으로 亡命하였다. 日本에 亡命中 1914年 日本에서 宋慶齡과 結婚하였다고 한다.

1913年 8월에 中國革命同盟會와 若干의 群小政黨을 합하여 國民黨을 조직하였으며 理事長으로 추대하고 宋教仁으로 대리케 하였다. 參議院・衆議院에서는 國民黨 出身 議員이 절대 다수를 차지 하였다. 그러나 軍・政大權은 袁世凱가 장악하고 省의 都督도 대

4) 前掲, 《中國通史》, p. 700.

5) 前掲, 《中國通史》, p. 701.

安藤彦太郎, 《三民主義》下 (岩波文庫, 1960), p. 253. 李明九, 前掲書, p. 301.

부분 그의一派였으며 袁世凱의野心은 더욱 커져 1914年 3월에 袁世凱는 사람을 보내 上海에서 宋教仁을 刺殺하였다. 4월에 孫文은 당시 日本에서 이 소식을 듣고 上海에 돌아와 袁世凱의 토벌을 논의하였다. 袁世凱는 國會의 同意없이 借款을 도입하여 革命勢力을 없애려고 하였다. 11月 4日에는 袁世凱는 國民黨을 해산시키고 國民黨籍의 國會議員의 자격을 박탈하고 1914年(民國 3) 初에는 國會와 各省議會의 解散을 命令하였다. 5月에는 內閣責任制 大統領制로 바꾸고 參政院을 설치하여 立法權을 代行토록 하였는데 參政員 70명은 모두 袁世凱가 임명하여 獨裁政治가 出現하였다. 淸帝의 復辟運動이 일어났으나 이를 엄금하고 帝制를 획책하여 1915年 12월에 洪憲元年이라고 치고 袁世凱는 적극적인 登極準備를 하고 있었다. 물론 全國의 輿論은 들끓고 反對運動이 일어나고 帝制는 失敗하였다. 이와 같은 民國初期의 混亂속에서 孫文은 第2次 革命이 실패한 후에 日本에 체류하면서 再起를 도모하고 있다가 護國軍이 일어나자 日本으로부터 歸國하여 各代表들과 袁世凱를 토벌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이때에는 廣州에서 다시 護法을 부르짖고 國會議員들에게 電報로 장소를 定하여 國會를 개최하도록 요청하였다. 1917年(民國 6) 8月에는 대부분의 國會議員이 廣州에서 非常會議를 열고 軍政府의 조직을 決議하여 9月初 孫文을 海陸軍大元帥로 선거하여 난을 평정할 것과 護法을 선언하였다. 護法鬭爭과 南北對立과 그 鬭爭이 계속되는 가운데 1918年(民國 7) 5월에 國會에 大元帥職을 사퇴하였다. 그리하여 國會는 軍政府組織法을 고쳐 元帥制를 合議制로 고치고 孫文등 7명을 總裁로 선거하였다. 孫文은 廣東을 떠나 上海로 가서 취임을 거부하였다. 1919年 2月 南代表가 上海에서 和議하여 수 개월동안 談判하였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1920年 6월에 孫文은 唐紹儀・伍廷芳・唐繼堯등과 연합선언을 하고 岑春煊・陸榮廷을 성토하며 한편으로 사람을 보내 廣東軍將領인 陳炯明에게 廣州로 진군하게 하였다.

1921年 4月 舊國會가 廣州에서 非常會議를 열어 軍政府를 취소하고 中華民國政府로 개조하도록 決議하고 또한 孫文을 非常大總統에 선거하여 南北에 각각 總統이 있게 되었다. 南北은 분열된 상태가 계속되었다.

民國樹立 후에 內戰이 더욱 심해지자 列強의 壓迫도 加重되어 列強의 侵略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淸末 以來로 中國을 侵略한 나라들 가운데 英・日・露가 가장 심하였다. 그들은 이미 각각 탈취할 목표가 定하여져 英은 西藏, 露는 外蒙, 日은 東北을 侵略하여 커다란 피해를 입혔다. 第一次 世界大戰 後에 英國은 그 戰後의 복구로 잠시 주춤했고 露는 共產黨의 革命으로 新政府가 수립되어 잠시 밖으로 발전할 수가 없었으며 오직 日本만이 國力을 더욱 신장하여 中國의 最大의 敵이 되었다.

1914年(民國 3) 第一次世界大戰이 일어난 다음 해 1월에 日本은 마침내 中國에 대하여 5項 21個 條約 체결을 要求하였는데 그 內容은 마치 中國을 植民地視한 것같이 가혹하였다.⁶⁾고 한다. 이리하여 列強의 侵略에 대항하여 五四運動이 일어났다.

6) 前掲, 《中國通史》, p. 755. 著者は「直視中國爲殖民地。」라고 記述하고 있다.

1921年(民國 10) 護法政府는 兩廣地域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때 孫文은 北伐을 도모코저 모든 힘을 기울이고 있었다. 年末에 桂林에 大本營을 설치하고 적극적으로 北伐을 준비하는 한편 陳炯明을 廣州에 머물게 하여 軍糧과 軍器를 보급하게 하였다. 그러나 陳炯明은 뜻을 달리하여 北伐軍에 일체 공급하지 않았다. 다음 해 孫文은 軍糧이 결핍하여 廣東으로 돌아와 北伐의 길을 바꾸려고 계획하였다.

陳炯明은 자기를 치려하는가 의심하고 6월에 반란을 일으켰으나 孫文은 다행 이 亂을 避하여 1923年(民國 12) 初에 廣州를 탈환하여 2월에 孫文은 大元帥에 재취임하여 諸軍을 統率하였다.

同盟會는 1912년에 國民黨으로 개조된 이래 2차 革命에 실패한 후 1915年(民國 4)에는 中華革命黨으로 개조하고 1919년에 다시 中國國民黨이라 改稱하였으나 孫文은 國事가 점차 문란하고 國民黨이 안정되지 못하여 다시 정돈하기로 하여 1923年 1월에 中國國民黨 宣言을 발표하고 三民主義와 五權憲法의 原則을 선포하였다. 다음 해 1월에 廣州에서 中國國民黨 第一次 全國代表大會를 개최하고 黨憲을 통과시켜 조직을 革新하고 蔣中正(介石)에 命하여 黃埔陸軍軍官學校를 설립하고 革命武力을 배양하게 하여 革命精神이 드높게 되었다. 그 후 北方 軍閥과 談判하러 北上하였는데 1925年(民國 14) 3月 12日에 病勢가 惡化하여 革命의 生涯를 마쳤다.

2. 《三民主義》의 構成

위에서 記述한 바와 같이 孫文은 淸佛戰爭 後에 滿淸政府의 부패를 목격하고 滿淸을 打倒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였다. 光緒 20年(1894)에 淸日戰爭이 일어나자 李鴻章에게 上書하여 救國大計를 建議하였으나 拒絕당하고 「하와이」로 가서 同志들을 규합하여 興中會를 조직하였다. 다음 해에는 香港에 興中會總機關을 두었는데 「驅除 韃虜, 恢復中國, 創立合衆政府」⁷⁾을 宗旨로 삼았다. 또한 廣州에서 舉事하기로 하였으나 이루지 못하고 同志들은 체포되고 被殺者가 數十名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 후 孫文은 日本을 周遊하면서 하와이・美國에 있는 華僑들에게 연락하여 革命을 고취하여 光緒 22年(1896) 8월에 美國에서 渡英하여 淸使館에 强禁당하였는데 英國政府의 强硬한 交渉으로 九死一生을 풀려났다.⁸⁾

傅樂成教授는 그의 著 《中國通史》에서 三民主義思想의 形成에 關連하여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遂暫留英國, 從事研究工作, 其三民主義的思想, 至此漸成體系」 곧 英國에 체류하는

7) 前掲《中國通史》下冊, p.699.

8) Shao Chuan Leng and Norman D. Palmer, Sun Yat-Sen and Communism, New York: The foreign policy research institute University of pennsylvania, 1960, p.19에 의하면 1896年 10月 孫文은 런던에서 淸國公使館에 拘禁되었다가 옛은사 James Cantlie의 도움으로 救出되었는데 이를 契機로 孫文의 이름이 널리 알려졌으며 그 후 2年동안 유럽에 머물면서 政治・外交・法律・經濟・軍事・鑛業・農業, 畜産, 工業 등多方面에 걸쳐 研究에 몰두하였다고 한다.

동안 研究에 從事하여 또 民主主義思想이 점차 體系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光緒 29年(1903)에 孫文은 日本에서 美國으로 건너갔다. 다음 해에 유럽으로 가서 革命을 선전하여 많은 留學生이 참가하고 光緒 31年(1905)에 日本으로 돌아와 黃興과 같이 東京에서 中國同盟會를 조직하고 「民報」를 創刊하여 正式으로 三民主義를 提示하고 同志들을 귀국시켜 활동케 하였다.⁹⁾고 한다. 그리고 1923年 1월에 中國國民黨宣言을 발표하고 三民主義와 五權憲法의 原則을 선포하였다¹⁰⁾고 한다.

現存하는 그의 三民主義는 陳炯明의 叛亂으로 原稿가 거의 完成되어 出版段階에 있던 것이 燒失되어 그가 1924年 1月 27日 부터 8月 24日까지 講演한 것을 整理한 것인데 이를 준비할 겨를도 없이 演壇에서 即席으로 말할 것이므로 引用文獻의 不明確은 勿論 講演을 마치기로 前에 죽음으로써 民生主義에 대한 結論을 내리지 못하여 未完成인 채 남은 것이다.

孫文은 《三民主義》 自序에서 「《建國方略》중 《心理建設》, 《物質建設》, 《社會建設》의 셋 책이 出版된 후 부터 나는 곧 《國家建設》의 執筆에 從事하여 이들을 한 帙의 책으로 完成코저 하였다. 《國家建設》은 앞에 말한 셋 책에 비하면 부피가 큰 것이어서 「民族主義」, 「民權主義」, 「民生主義」, 「五權憲法」, 「地方政府」, 「中央政府」, 「外交政策」, 「國防計劃」의 八冊으로 꾸밀 생각이었다. 그 가운데 《民族主義》라는 冊은 이미 脫稿되고 「民權主義」, 「民生主義」의 2冊도 大部分 草稿가 完成되었다. 그 외의 것도 思想의 展開 및 研究의 순서와 계획이 대략 決定되어 있었으므로 틈을 타서 바로 執筆하여 더 思索할 것 없이 完成한 다음에 全書로서 세상에 내어 놓으려고 하였다. 그런데 예기치 않던 11年 6月 16日 陳炯明이 叛變을 일으켜 觀音山을 砲擊하였는데 그 때 마침내 數年間 心血을 기울여 겨우 이루어 놓은 各種 原稿와 參考로 하던 洋書 數百種을 모두 불태워 버렸으니 참으로 원통한 일이었다. 이제 國民黨을 개편함에 이르러 同志들은 전쟁에 의하지 않고 德化와 智略으로 敵을 극복하는 奮鬪를 하기로 결심하고 급히 三民主義의 奧義와 五權憲法의 要旨를 求하여 선전자료로 삼고저 하므로 每週 한 번씩 講演하고 黃昌穀君에게는 筆記를 부탁하고 鄒魯君에게는 讀校를 부탁하였다. 이러하여 이번에 民族主義의 講演이 끝났으므로 먼저 인쇄하여 單行本으로 하여 同志들에게 보내려고 한다. 다만 이번 講演에는 준비할 겨를도 없었고 또 참고할 책도 없었으므로 다만 演壇에 오른 후에 생각나는 대로 말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前稿에 비교하여 잇은 곳이 매우 많이 있다. 出版하기 前에 보충도 하고 修正도 하였으나 主題의 精義와 叙論의 條理와 引證事 등이 前稿와는 멀리 같지 못함을 안다. 그러므로 동지 및 讀者에게 부족함을 匡補하고 叙述을 바로잡아 宣傳教材로서 완전한 冊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民族과 우리 國家의 福됨이 참으로 무궁하게 될것을 믿는다」고 말하였다.

9) 上掲書, p.700.

10) 上同, p.757.

以上에서 現存하는 《三民主義》著述의 경위를 알 수 있다. 孫文은 「三民主義」는 救國主義라고 하였다. 少年時代에 西歐教育을 받고 그以後 西歐의 教養을 쌓은 孫文의 理想 속에는 富強한 近代 國家에의 建設이 들어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單純한 歐化主義者는 아니었다. 그가 理想으로 하는 近代國家에도 矛盾이 있다면 歐美的 近代國家 그대로가 아니고 그 欠陷을 뛰어 넘은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고 하겠다. 三民主義는 이와 같은 救國의 精神으로 形成된 思想이다. 半殖民地・反封建社會의 革命運動에는 「세가지 커다란 問題가 가로놓여 있다. 첫째로 民族獨立, 둘째로 政治的 民主制度, 셋째로 經濟的 民主制度」¹¹⁾라고 한다. 三民主義는 中國 革命運動의 要求에서着想되었다. 이에 앞서 孫文과 그 同志들은 廣東을 中心으로 興中會라는 革命團體를 組織하고 「韃虜(滿州人의 清朝)를 驅除하고 中華를 恢復하고 合衆政府를 創立하는」것을 綱領으로 삼고 있었다. 1905年 이 興中會와 湖南出身者를 中心으로 하는 華興會, 浙江出身者를 中心으로 하는 光復會의 三團體가 合同하여 中國革命同盟會가 日本에서 結成되었다. 同盟會는 清末의 革命運動에 커다란 轉機를 가져온 것으로 그때까지 改良派의 康有爲・梁啓超의 揮下에 있던 青年들을 革命派에 끌어들이었다. 孫文이 그 總理에 취임하고 興中會 以來의 主張이 그 綱領의 基調를 이루었다. 同盟會宣言에 의하면 「韃虜의 驅除, 中華의 恢復, 民國의 建立, 地權의 平均」을 「四綱」이라 하고 이것을 實現하는 段階로서 「軍法의 治, 約法의 治, 憲法의 治」를 「三序」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 해에 同盟會의 月刊機關誌로써 東京에서 發行된 《民報》의 發刊辭에 孫文은 이 「四綱」을 民族・民權・民生의 셋으로 集約하여 三大主義라고 부르고 發表한 것이다. 「四綱」의 前半의 둘이 民族主義, 세번째가 民權主義, 네번째가 民生主義에 해당된다. 다음에 《民報》一週年 記念會에서의 演說에서는 三大主義가 三民主義로 바뀌었다고 한다.¹²⁾

民族主義는 「韃虜의 驅除」에서 미루어 알 수 있는데 專制的인 無能하고 부패한 滿州族의 清朝를 打倒한다는데 中心意味가 있었다. 孫文의 主張은 當時 盛行했던 「反清復明」의 種族主義的인 것보다도 統一있는 近代 國家의 建設에 重點이 있었다고들 한다.¹³⁾ 그러나 當面한 目標가 清朝打倒였음으로 「滅滿興漢」이라는 點에서 會黨(秘密結社)과 提携할 수 있었으며 事實 興中會는 會黨을 기초로 하여 成立하였다고 한다. 民族主義가 孫文에 있어서 明確하게 反帝國主義라는 內容을 갖이게 된 것은 뒤 날 五四運動을 經過하고 부터라고 한다.¹⁴⁾

民權主義로 말하면 孫文의 共和主義는 始終一貫하고 있었다. 市民的 民主主義를 中國에 확립하는 것이 不變의 理想이었다. 이를테면 「五權憲法」같은 것은 벌써 《民報》發刊辭에 그 개요가 발표되었다. 孫文에 있어서는 元來 中國의 自主獨立을 위한 強力한 政府

11) 陳伯達, 〈孫中山主義論 論衡〉.

金翰, 〈孫文研究(上)〉, 《史學志》第2輯, 1968, 檀國大學校.

12) 安藤彦太郎譯, 《三民主義》下(岩波文庫, 1960), p. 247.

13) 上同.

14) 上揭書, p. 248.

를 만들자는 의도에서 말한 것이라고 한다.¹⁵⁾

民權主義에 관해서도 五四運動 이후 고전적 「데모크라시」의 틀에 의하면서도 상당히 內容을 고치고 있다. 直接 民權을 채택한다던가 처음에는 「連省自治」에 가까웠으나 후에는 그에 철저히 반대하고 더 한층 中國의 현실에 밀착토록 하였다는 點이 그것이다. 《建國大綱》(1924年)에서는 건국의 순서를 軍政時期, 訓政時期, 憲政時期로 나누고 이것을 地方自治實現의 정도에 부응하여 나아간 三段階로 하고 있으나 이것은 同盟會의 「三序」를 發展시킨 思想이며 革命 성취의 地域的 不均衡, 軍閥의 存在와 같은 中國革命의 特別한 性格을 革命家로서 現實의으로 파악한 것¹⁶⁾이라고 할 것이다.

民生主義의 내용인 「地權平均」은 興中會의 綱領에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앞에 나온 《心理建設》에서 말한것 처럼 「유럽」에서는 국가가 부강하게 되고 民權이 발달하였는데도 社會問題가 일어나며 革命運動이 일어났음을 보고 그 폐단을 미리 회피하기 위하여 民生主義를 채택 했을 것이다.

以上과 같이 三民主義 思想은 清末에 着想되어 民國 이후의 經驗과 五四運動을 겪으면서 그 내용을 풍부하게 해 왔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것과 후에 덧붙인 것이 일치하지 않는 곳도 있으나 이러한 것은 孫文에게는 문제되지 않으며 救國에 効用이 있다는 점에서 통일시키고 있다. 그리고 孫文의 著述을 들어 「孫文의 思想은 그저 앞질러 달리는 것이 아니라 매우 천천히 革命의 歷史와 함께 나아가고 있다」고 하고, 그러므로 「孫文의 정신은 매우 自主의이며 獨自의인 思想的 態度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¹⁷⁾는 것이다.

Ⅲ. 民族主義와 人間觀

1. 民族主義와 國族主義

孫文은 三民主義 講演의 冒頭에서 「三民主義 就是 救國主義」¹⁸⁾라고 하였다. 三民主義가 中國의 國際的 地位의 平等・政治的 地位의 平等・經濟的 地位의 平等을 促進하여 中國을 하여금 영원히 世界에 適存시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三民主義를 救國主義라고 한다는 것이다.

무릇 人間이 어떤 것에 관하여 가장 마땅한 道理를 研究하면 먼저 思想이 發生한다. 그 思想이 貫通하면 信仰이 發生하고 信仰이 形成되면 힘이 發生하여 完全하게 成立하는 것이라고 한다.

위와같이 三民主義를 信仰하면 바로 極히 큰 힘이 發生하게 되는데 이러한 極히 큰 힘

15) 李明九譯, 《三民主義》, (三星文化文庫), p. 307.

16) 安藤彦太郎譯, 《三民主義》下, p. 248.

宋甲鎬, 〈孫文의 國民革命思想〉, 《史叢》第十五・十六合輯, 1971, 高麗大學校.

17) 李明九譯, 《三民主義》, p. 308.

18) 中國國民黨 中央委員會, 《三民主義》, (中央文物供應社, 民國 71), p. 1.

이 바로 中國을 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 (信仰三民主義，便能發生出極大勢力，這種極大勢)

1924年(民國 13年) 1月 27日 第一講에서는 民族主義란 무엇인가? 그리고 유럽 近代國家와 民族의 客觀的 要素에 관한 講演內容이 敘述되고 있다.

中國에 있어서는 일찍이 同姓同本 不婚의 風俗이 있어 廣範圍에 걸쳐 民族融和가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一民族一國家를 이루었다. 유럽에 있어서 그리스인은 늘 民族觀念을 人類觀念에 消化시키고 國家觀念은 天下 또는 世界觀念 속에 두었다. 그들은 民族과 國家를 당연히 文化의 한 有機體로 파악했으며 狹意의 民族觀과 國家觀은 없었다. 民族과 國家는 오로지 文化를 위하여 存在하기 때문에 이 兩者는 늘 그림자처럼 親密한 관계에 있었다. 民族의 融和가 곧 國家의 形成이며 國家의 形成이 또한 民族의 融和가 된다. 유럽에 있어서 그리스인은 民族은 있으나 國家의 形成은 없었고 로마인은 國家는 있어도 民族은 融和시키지 못했다. 現代 유럽인에게도 民族과 國家는 끝내 하나로 融合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¹⁹⁾

그런데 유럽 近代國家의 本質은 軍事國家, 植民地國家였다. 中國의 傳統國家가 前述한 바와 같이 一民族一國家로써 그 本質은 民族의 融和이며 親和였다. 따라서 孫文도 中國인이 가장 尊重하는 것이 「家族主義와 宗族主義」라고 한다. 「中國인은 家族과 宗族의 團結力이 매우 強力하다」²⁰⁾는 것이다. (就是因爲一般人民祇有家族主義和宗族主義，沒有國族主義，中國人對於家族和宗族的團結力，非常強大…….) 要컨대 中國人들은 國家觀念이 最高의 窮極의인 것이 아니고 天下觀念에 內包되는데 反하여 유럽 近代國家는 中世 유럽의 國家關係와는 달리 오로지 自國의 國力 곧 軍事力에 의하여 國家存立과 國家利益이 保障되는 軍事國家였다. 中世의 國家間의 分爭은 로마 敎皇의 超國家的인 調整機能에 의하여 解決되었으나 中世 封建社會가 붕괴하고 이와같은 超國家的인 調整機能이 없어진 마당에서는 自衛의 口實下에 유럽 근대 國家는 軍事國家化하고 對外로 侵略을 일삼아 植民地를 갖이는 植民地國家化한 것이다. 이와같은 軍事國家 植民地國家로서의 유럽 近代 國家는 軍事國家로서 現代國家 植民地 國家로서의 現代國家로 넘어 온 것이다. 유럽 近代國家는 國內에 있어서 市民民主主義를 取하면서 對外的으로는 侵略을 일삼는 矛盾된 帝國主義國家였던 것이다. 이와같은 帝國主義列強의 膨창과 侵略에 對抗하기 위해서는 民族主義에 依해서 만이 自主獨立을 爭取할 수 있다고 判斷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그는 「民族主義는 救國主義」라고 한 것이다. 그리고 民族主義는 國族主義라고 하였다. (我說民族主義就是國族主義).²¹⁾ 그리고 民族形成은 自然力에 依하지만 가장 큰 힘은 血統(造成這種民族的原因，概括的說，是 自然力……當中最大的力是血統.²²⁾)이고, 다음

19) 錢穆, 李鍾燦譯, 《中國文化史》, (東文社, 1979), p. 36.

20) 前掲, 《三民主義》, p. 2.

21) 上掲, 《三民主義》, p. 2.

22) 上掲書, p. 4.

으로 큰 힘이 生活(次大的力是生活)이고, 셋째로 큰 힘이 「言語」(第三大的力是語言)이고, 네째로 큰 힘은 宗教(第四個力是宗教.)이고, 다섯째의 힘은 「風俗習慣」(第五個力是風俗習慣)이라고 하고 있다.

要컨데 孫文의 民族主義는 「民族主義는 國族主義」라고 한 말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傳統的인 一民族 一國家의 觀念속에 유럽 近代 國民國家의 觀念을 內包한 것이다. 유럽 近代 國家乃至 그 國民國家의 矛盾을 超克하는 中國의 一民族一國家觀의 發展된 思想이라고 하겠다.

以上은 民國 13年(1924年) 1月 27日의 第一講을 考察하였다.

2. 民族 興亡盛衰의 原因과 中國民族主義 衰亡의 原因

第二講은 同年 2月 3日에 하였다. 여기서 中國民族이 處한 어려운 狀況을 들어 民族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 먼저 民族興亡의 原因(民族之所以興亡)²³⁾은 自然的인 힘과 人爲的인 힘으로 二大別할 수 있거니와 自古로 民族興亡의 原因은 人口增減에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自然淘汰에 의하는 것인데 人類는 이 自然淘汰의 힘에 傍靠하면 抵抗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옛적 存在하였던 많은 民族이나 有名한 民族이 지금 자취를 감추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中國民族은 生成이 적어도 六千年은 될 것이나 하늘(天)은 이 民族을 消滅시키지 아니 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繁榮시켜서 最大多數인 人口 四億이 되는 民族이라는 것이다. 中國民族이 받은 天惠는 他民族에 比하여 유독 두둑고 큰 것이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自然에 의한 또 人間에 의한 여러가지 變化를 經驗하면서 有史以來 4천여년에 걸쳐 오직 文明은 進步할 뿐 民族의 衰退는 없었다.代代로 이어져 오늘날에 이르러 오히려 세계에서 가장 優秀한 民族으로 남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樂觀的인 사람들은 中國民族이 얼마나 많은 災厄을 經驗하여 온지를 알 수 없는데도 이제껏 전혀 滅亡함이 없으니 앞으로 어떠한 災厄을 겪더라도 決코 멸망에 이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하고 孫文은 이와 같은 論調나 希望은 틀린다는 것이다. 自然淘汰力에서 만이 말한다면 中國民族은 生存해 갈런지 모르지만 世界의 進化力은 自然力만이 아니고 自然力과 人爲力이 합한 것이다. 人爲的 力量이 可히 하늘의 꾸밈을 빼앗을 수 있으니 이른바 「人事勝天」²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人爲의 힘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두가지 있다. 그 하나는 政治力이고 또 다른 하나는 經濟力인데 이 두가지 힘의 民族興亡에 있어서 自然力보다 훨씬 크다. 곧 思惟가 存在를 規定한다는 思想의 一端임을 알 수 있다. 中國은 數千年 以來 政治力의 壓迫을 받아서 完全한 亡國이 된 적이 두번 있었다는 것이다. 元朝와 清朝때의 일이다. 그러나 이 두번의 亡國은 少數民族에 의한 것이나 그들은 우리들 多數民族에게 同化되었으나

23) 上揭書, p.17.

24) 上揭書, p.17.

現在는 우리를 壓迫하는 列強의 人口가 多數이며 中國民族에게 絶頂 政治力과 經濟의 壓迫이 없다고 하더라도 人口增減 乃至 成長의 觀點 곧 自然의 進化力만으로 말하더라도 中國의 人口는 滅亡하고 말것이다. 自然淘汰力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政治力과 經濟力의 壓迫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이 政治力과 經濟力은 自然淘汰力 보다 더 빨리 더 쉽게 大民族을 滅亡 시킨다는 것이다. 政治力의 壓迫은 領土 喪失에 集中的으로 볼수 있고 列強의 經濟力에 의한 壓迫은 半植民地라고 할 程度가 아니고 全植民보다 더 가혹하다는 것이다. 中國은 半植民地라는 것은 틀린것이고 「次植民地」라는 것이다.²⁵⁾ 關稅의 外國管理에 의해 中國의 物品에 重稅를 부과해서 外國의 物品을 保護하고 있다고 하고 政治力에 의한 壓迫은 有形의 것이기에 어리석은 자에게도 눈에 띄이게 되지만 經濟力에 의한 壓迫은 無形이기 때문에 一般人에게는 눈에 띄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經濟力에 의한 壓迫에는 關稅外에 또 外國銀行의 支配를 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外國海運의 支配, 租界와 割讓地의 存在, 外國商人의 特權의 營業을 들고 있다.

民族主義는 國家發展을 도모하고 種族生存을 도모하는 보배(寶)인데 中國民族主義는 벌써 亡해버렸다고 孫文은 말하고 있다. 그 原因은 滿清에 의한 民族精神의 破壞에 있다.

康熙, 雍正(1723~1735)때는 아직 明朝遺民의 排滿의 氣風이 盛하였으니 《大義覺迷錄》은 滿漢의 協力을 촉구하는 雍正帝의 勅諭을 모은 것인데 이와 같은 著述이 몇 몇 出版되어 漢人에 대해서 滿州人이 皇帝가 되는데 反對할 것이 못된다고 쓰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의 理由인 즉 「옛 聖君舜은 東夷人이며 文王은 西夷人이다. 그러므로 滿州人은 夷狄人이기는 하나 中國의 皇帝가 되어서 무방하다」²⁶⁾는 것이다.

康熙, 雍正은 스스로 滿州人이라는 것을 承認하고 있지만 乾隆時代에는 滿·漢이라고 하는 두 字마저도 입밖에 낼 수 없고 歷史書도 고쳐쓰고 특히 宋·元의 歷史的 關係와 明·清의 歷史的 關係에 관하여서는 모조리 削除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中國民族主義가 亡한 原因은 異民族에 의한 征服에 있다고 하고 있다. 어떤 民族이 다른 民族을 征服할 경우 民族獨立 思想을 지켜나가는 것을 許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乾隆時에는 滿·漢의 區別을 完全히 없어졌다는 것이다.

中國의 民族主義가 亡한것은 本來 亡國이 그 原因이며 外國人에 征服되었기 때문이라고 하고 그러나 外國에서는 亡國이 되어도 民族主義가 亡하지 않는데 대하여 中國은 民族主義가 亡한 原因은 中國의 歷代 帝國主義에 있다는 것이다. 王道에 의해서 各 弱小民族을 支配하게 되었다. 中國이 亡國以前에 벌써 民族主義에서 世界主義로 서서히 나아갔다는 것이다. 그리고 民族主義는 偏狹하고 寬容치 못하다고 하고 民族主義에 反對하는 世界主義를 들고 있다. 世界主義란 中國이 二千年 以上 以前부터 말하였던 「天下

25) 化學藥品 가운데 磷의 化合物이면서 質이 떨어지는 亞磷酸이 있는데 이것보다 더욱 質이 낮은 것이 次亞磷酸이라고 부르고 있다. 또 各部官制에서 總長보다 낮은 것을 次長이라고 한다고 하여 次植民地가 半植民地보다 더 低質이라는 뜻이다.

26) 「舜是東夷之人, 文王是西夷之人, 滿州人雖是夷狄之人, 還可以來做中國的皇帝」, 上揭, 《三民主義》, p.36.

主義」라는 것이다. 곧 帝國主義는 世界主義를 주장한다는 것이다. 國家란 帝國主義에 의해서 他國을 征服하면 그 特殊한 地位를 보존하고자 하니 全世界의 主人公이 되고자 한다. 곧 世界主義를 주장하여 全世界를 服從시키고자 한다. 中國도 이와같이 元來 世界主義를 하였다는 것이다.

또 하늘(天)이 中國人 四億을 낳아서 오늘 날 까지 保存케 한 것은 하늘(天)이 中國을 亡하게 할 뜻이 없었기 때문이며 將來 만일 中國이 亡하였다고 한다면 그 罪는 우리들 自身에 있다고 하고 있다.²⁷⁾

이와같이 오늘날 잃어버린 中國의 民族主義를 恢復해서 이 4億 中國人의 힘을 가지고 人類를 위하여 不公平을 척결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이 4億 中國人의 天職이다. 列強은 우리들이 이러한 사상을 갖는 것을 두려워 하기때문에 似而非의 道理를 만들어 내어 世界主義를 주장하면서 우리를 선동 眩惑케 하며 世界의 文明은 進步하여야 한다느니 人類의 眼光은 遠大하여야 한다느니 民族主義는 지나치게 偏狹하여 크게 適當치 못한다고 하여 世界主義를 주장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近來 中國의 新青年이 新文化를 주장하고 民族主義에 反對하고 있는 것은 이 같은 道理에 誘惑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 道理는 屈辱을 받고 있는 민족이 입에 올릴 바가 아니며 우리들 屈辱을 받는 民族은 반드시 먼저 우리들 민족의 自由·平等한 地位를 회복한 뒤에 비로소 世界主義를 입에 올릴 資格이 있다²⁸⁾는 것이다. 또 世界主義는 民族主義에서 나온 것이라 한다. 要컨대 亡國의 民이 世界主義를 주장하고 民族主義는 必要없다고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와 같이 孫文은 民族主義를 주장하는데 中國 民族主義의 妥當性의 根據로서 中國의 歷代 平和思想을 들고 있다. 그는 말하기를 「우리들 祖上은 옛적에 政治力을 가지고 항상 弱少民族을 侵略하여 왔다. ……經濟力에 의해서 他民族을 壓迫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리고 中國文化는 유럽文化의 最好의 時代는 魏晉, 로마인데……그 로마는 中國의 漢朝와 同時代이다. 그때 벌써 中國의 政治思想은 매우 높고 깊은 것이 었다」는 것이다. 帝國主義를 極力反對하고 있었으며 中國의 領土擴張을 反對하고, 戰爭을 反對하여 中國의 平和思想은 漢朝때 벌써 매우 充實한 것이 었다는 것이다. 宋朝때에는 中國은 侵略하지 아니 하였을 뿐만 아니라 宋朝는 蒙古에 滅亡되었다. 明朝에 이르러 나라를 恢復하였다. 明朝가 恢復한 뒤에도 侵略하지 아니하였다. 當時 南方의 各小國이 進貢하고 中國에 歸化하고자 하였는데 그들이 中國文化를 仰慕하여 스스로 歸順한 것이지 中國이 武力을 가지고 그들을 壓迫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를테면 巫來나 南洋群島에 있는 小國은 中國이 그들을 版圖에 넣어서 進貢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였다는 것이다. 十

27) 「因爲天生了我們四萬萬人，能够保存到今日，是天從前不想亡中國，將來如果中國亡了，罪惡是在我們自己，我們就是世界上的罪人。」上揭書，p. 46.

28) 我們今日要把中國失去了的民族主義，恢復起來，用此四萬萬人的力量，爲世界上的人打不平，這才算是我們四萬萬人的天職，列強因爲恐怕我們有了這種思想，所以便生出一種似是而非的道理……但是這種道理，不是受屈民族所應該講的，我們受屈民族 必先要把我們民族自由平等的地位地位起來之後，才配得來講世界主義。(上揭書，p. 54).

餘年前 孫文은 暹羅의 外務部에서 그 次官과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그 次官이 말하기를 만일 中國이 革命을 이루워 富強한 國家가 된다면 暹羅은 中國에 歸屬하여 一省이 되고자 한다고 하였다는 것이다.

要컨대 孫文은 平和와 文化의 傳統은 周圍의 弱小民族이 仰慕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유럽에 流行하고 있는 新文化나 그들이 주장하는 無政府主義나 共產主義는 中國에서 數千年前에 있었던 것으로 이를테면 道家의 政治學說은 無政府主義라는 것이다. 또 列子「華胥國」은 無政府主義가 아니겠는가 하고 한다.

要컨대 오늘날의 유럽의 世界主義는 強權만 있고 公理가 없는 主義라는 것이다. 英國 말에는「武力은 公理이다」(might is right)²⁹⁾고 하는데 이것은 勝利者에게 道理가 있다는 것인데 中國人은 元來 戰爭이라는 것을 그와같이 생각지 아니하고 野蠻的인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好道德이 世界主義의 眞正한 精神이라는 것이다. 이른바「欲平天下者先治其國」과 같이 世界主義를 주장하려면 먼저 民族主義를 주장해야 된다는 것이다.

要컨대 孫文은 中國의 民族主義의 妥當根據로서 中國歷代의 和平思想과 文化는 접촉한 모두가 仰慕하는 바를 들고 和平의 道德, 政治의 人道化의 民族文化의 人道性을 民族主義의 妥當根據로 들고 있다. 그리고 이 民族主義를 世界主義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偉大한 思想이다.

Ⅶ. 結 論

以上에서 考察한 바와 같이 中山 孫文先生의 民族主義 思想은 民族主義思想一般의 極이 될 것이다. 中山의 民族主義 思想의 理論은 이른바 得正, 得中 따라서 正中 또는 中正을 이룬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思想의 밑바탕 또는 窮極에 있는 人間觀은 數千年 以來 繼往聖開來學에 立脚하고 있다.

그는「人事勝天」이라고 하였다. 易의 이른바「統天思想」乃至「御天思想」의 表現이며 人性과 天理의 學, 性理學의 가장 重要한 思想이라고 생각된다.

第五講의 民族主義 恢復方法 理論은 格物致知誠意正心の 순서에 立脚하였다고 하겠다.

29) San Min Chu I by Sun Yat-Sen, with Two Supplement Chapters, by Chiang Kai-Shek, China Publishing Co., p.26.